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행복한 세상 바라다면 나눔 실천해야”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 회원 61명 기부·봉사활동 지난 한해 2억여원 모금

제주에서 아이들을 돕는 대표 단체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이하 제주후원회)는 지역의 어린이를 돕는 카다리아저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라일보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 2호 인터뷰 대상자인 제주후원회를 소개한다.

1983년에 창립한 제주후원회는 현재 61명의 회원들이 어린이재단의 아동복지사업 지원, 후원자 개발, 봉사 및 기부활동 등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강문원 회장은 재단의 고액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해 1억원 후원을 약속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강 회장은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돌아보며, 힘든 여건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다”며 “행복한 세상을 바라다면 나눔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983년 창립한 제주후원회는 61명의 회원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제주후원회는 회원 본인의 기부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나눔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에만 55명의 후원자를 발굴한 장영우 수석부회장은 “기부에 대해 잘 몰랐던 지인들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주후원회는 기부와 더불어 직접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보육원 아동들과 나들이 활동을 진행하고, 직접 감자를 담궈서 아동 가정과 시설에 전달해오고 있다. 연말에는 아동들을 초청해서 일일 산타가 되어 주기도 한다. 후원자의 대표모임으로서, 후원자를 위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나눔음악회를 주최, 제주지역 900여명의 후원자를 초대해 감사의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후원회는 2018년 한해 동안 374명의 후원자를 발굴하고, 2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해 어린이를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어린이재단 전국 47개 후원회 중에서 우수후원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후원 문의=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64-753-3703) 김현석기자 k012@ihalla.com

“비 오는 날 폐수 슬쩍... 꼼짝 마”

제주시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집중 단속

제주시는 6월 20일부터 장마철 집중 호우시 공공수역 대규모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공업단지 및 레미콘 제조 공장 등 주요 폐수배출시설 60개소를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횟수(1회→4회) 강화 및 정밀지도점검 방법을 통한 강화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 무단설치 ▷폐수 무단배출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처리 여부 ▷유량계측기 및 운영일지 확인등이다. 제주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활환경민원처리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수배출 사업장에 자체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우체국 통폐합·시간제우체국 보류”

제주지방우정청 결정

속보=제주지방우정청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읍면 지역 우체국 통폐합·시간제우체국 추진 등의 계획을 일부 제외하고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방우정청은 5월초 도내 우체국 구조조정 계획으로 제주도 동부지역 오전우체국을 합덕우체국에, 서부지역 협재우체국을 한림우체국에 통폐합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제주도 환경면 고산우체국과 신

창우체국을 특정 시간에만 운영하는 시간제 우체국으로 전환하기로 행정 예고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제주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체국 통폐합 건은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으며, 환경면 시간제우체국 전환 건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결정해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우체국은 우편 업무만 가능한 우편출장소로 축소 운영된다. 김현석기자

타지역 렌터카 제주 불법반입 의혹

도, 여객·화물선사 10곳 대상 운송 렌터카 번호 제출 요청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가 관광 성수기 때 제주로 대거 불법 유입돼 영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가 조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항을 오가는 4개 여객선사와 6개 화물선사에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하, 허, 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배로 실어 제주에 운송했을 경우 해당 렌터카의 번호를 적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이런 공문을 보낸 이유는 일부 렌터카 업체가 수요가 몰리는 관광 성수기 때 더 많은 수익을 내려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까지 몰래 제주로 반입해 영업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타 지역 렌터카를 제주로 실어나를 수 있는 여객선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본사를 둔 도내 렌터카업체도 이런 의혹을 제주도가 나서서 조사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관광 성수기 때 하, 허, 호 번호판 단 렌터카들이 제주항으로 대거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한 회원들이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개인이 임차한 장기리스 렌터카인지 영업용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는)이 참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가져와 영업을 하려면 제주도 당국에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런 규정이 마련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가져와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이 임차해 반입하는 경우는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다. 일찌감치 도내 렌터카 업계 사이에서는 관광 성수기 때 허가 없이 제

주로 반입돼 영입에 활용되는 렌터카가 무려 1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그 실체가 정확히 확인된 적은 없다.

렌터카 일시 반입 의혹은 공무원 회의 때 언급됐다. 지난해 8월 고길림 당시 제주시장 직무대리는 간부회의에서 “도내 3만5000여대 렌터카에 다른 지역에서 1만여대의 렌터카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렌터카 불법 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 일시 유입 의혹은 공무원 회의에서 언급될 만큼 업계엔 공공하게 퍼져 있는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객선사가 제주로 운송한 렌터카 차량의 번호를 보내오면 렌터카업체에 어떤 목적으로 제주에 반입했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만약 그동안 불거진 불법 반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마라도 담수화 증설사업 마무리

도상하수도본부 “내달부터 물 공급”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마라도 담수화 증설사업’이 이달 중 완료를 앞두고 있다. 7월부터 물 공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관광객 증가 등으로 마라도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지난 2017년부터 총 25억원을 투입해 담수화 증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담수화사업이 완료되면 일 75t이던 물 공급량이 일 100t으로 늘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하수도본부는 마라도 담수화 증설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5개 도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돼 도민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상하수도본부는 도서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Advertisement for the 16th Binyeongmyeonggasa Award. It features a photo of the award ceremony and text: '제주 (故)한기삼씨 가문, 병역명문가 국무총리 표창 (회랑 무공 훈장)'. It lists recipients: 2nd Han Ilbu, Han Ilseung, Han Ilnam, Han Ilhwa, 3rd Han Yongguk, Han Jeoguk, Han Minuk, Han Myeonguk, Han Dongguk, Han Taeguk, Han Heonuk. Organizer: Cheongjuhanssi Namwon-eup Seobu Munjonghui.

Advertisement for a job fair. It features a photo of Kim Hyeonseop and text: '취득 임용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건축학박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새크라멘토) 조교수'. It lists the organizer: 외가 가족일동.

Advertisement for a job fair. It features a photo of a woman and text: '2019 서귀포 여성취업박람회'. It lists the date: '2019. 7. 5. 금 PM 2시 - 5시 서귀포 시민회관'. It lists the organizer: 서귀포시YWCA. It lists the location: '주최 | 서귀포시 주관 | 서귀포시YWCA 문의 | 서귀포시YWCA ☎ 762-1400'.